



‘내고 달고 맺고 풀고’

잠 속에서 배우는 자연의 원리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CD포함) 낸 작곡가 류형선 인터뷰

작곡가 류형선(41) 씨에게는 수아라는 이름의 딸이 있다. 수아는 나무 수榭, 언덕 아阿로 된 한자 이름으로 '나무가 있는 언덕'을 가리키는데 이름 속엔 '쉽'의 의미를 담아주고 싶어 했던 아빠의 간절함이 짙게 배어 있다. 수아가 언제고 얼굴을 파묻고 싶은 품을 가진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원하는 아빠의 마음이다. 자녀가 '쉽터'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쉽터'를 찾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 것일까. 류씨는 얼마 전 수아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잃었던 따뜻한 쉽터를 찾아주는 작업을 마쳤다. 엄마 품에서 느낄 수 있는 쉽터의 속삭임, 즉 전래자장가를 CD에 고스란히 담은 것이다. 특히 이 CD는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라는 제목의 전래자장가 책과 함께 얼굴을 내밀어 쉽터의 평온함을 배로 전하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음악과 글을 완성한 류씨는 북시디 작업을 총감독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아이의 세계에 진입하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부터 꺼내놓았다.

“혹시 자랄 때 들었던 자장가 기억나세요? 저도 자장가 듣고 자란 기억이 없습니다. 근대 창작동요는 있는데 자장가가 없다는 건 그 이전에 구전되던 자장가 맥이 끊어졌다는 의미지요. 대학시

절 학생운동을 하던 세대기 때문에 남다른 역사의식도 있었고, 현재 국악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터라 자연스럽게 전래자장가 찾는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해놓아야 할 일인데 제가 이 신비로운 음악세계를 찾고 알릴 수 있다는 게 영광이지요.”

북시디를 기획한 보림출판사와 류형선 씨는 전래자장가를 '기록' 하려는 입장을 일단 접어뒀다. 작곡가와 출판사가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은 '기록'이 아니라 단절된 전래자장가가 계속 구전되기를 소원하며 노래를 되살리고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정통 음악계에서 “전통적인 느낌이 덜 묻어난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극히 평범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불러주던 전래자장가 맛을 살리기 위해 정돈된 창법보다는 아기와 밀착된 느낌이 살아나는 일상적인 창법으로 자장가를 부른 까닭이다. 즉 류씨와 출판사 측은 '틀어놓고 듣기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일상적인 전래자장가를 담아보자는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음악을 먼저 완성했는데 처음에는 무대음반 분위기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악적인 느낌이 강조 되었지요. 그런데 듣고 보니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상적인 느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감했지요. 그래서 제작비를 다시 들이더라도 일상적인 느낌의 전래자장가로 고쳐 부르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 맛을 최대한 살리려고 일부러 아이를 키우는 엄마 가수를 섭외했지요.”

특히 이번 북시디 작업의 공신 중 한 사람은 당시 다섯 살이

던 류씨의 딸 수아였다. '아이'가 듣는 전래자장가이기에 수아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는 게 곧 독자반응을 살피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노래를 '일상을 빛는 예술', 즉 '평범한 생활 속 호흡을 담은 노래'라고 여겼던 류씨는 딸 아이가 '영금영금, 깜빡깜빡'이라는 의성, 의태어가 담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걸 보며 전래자장가야말로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 서 있는 '놀이'라는 걸 실감했다.

“물론 모든 게 수월했다면 거짓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작곡가들은 밤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녹음도 그렇고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장가 녹음을 하는 일이 쉽진 않지요. 드라마틱한 템포도 나오고 굴곡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목이 없으니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나 가수들은 “졸립냐? 졸리면 대박나는 거야!”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는 데는 초고를 완성한 후 수정하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유아교육 관련 이론서를 읽어보고 관련 전공자를 만나 아이들이 자장가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반응을 하는지, 심리적으로는 어떨지 등에 대해서 조연을 구하는 과정도 거쳤지요.”

이렇게 완성된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는 그만의 고유성을 갖는 책과 CD로 태어나 어린이 서가를 찾는 부모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CD에 담긴 전래자장가는 세 장르의 음악을 접목한다. 클래식과 파퓰러 음악, 그리고 국악이 한 상에 모인 것. 이는 대학 때 클래식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기독교 음악을, 그 이후에는 국악공부를 했던 류씨의 학업이력을 고스란히 좇고 있기도 하다.

“전래자장가의 맛과 느낌을 살리기 위해 대금, 소금, 북 등 국악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피아노, 기타 등의 현대적 악기도 사용했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의 어의는 살리되 어감은 현대적인 느낌으로 정리하는 편사작업도 했지요. 한편에는 자연의 소리까지 함께 담았는데 개구리 울음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이 부르던 전래자장가를 그대로 부른 게 아니라 제 스타일대로 다시 이어 붙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는 전래자장가에 숨어 있는 비밀부터 자장가의 리듬, 장단 등 자장가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편안한 구어체로 설명하고 있다. 류씨는 이 글을 통해 자장가가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어 부른 대중적 감성의 소산이며 ‘밥 한 그릇 담아 먹기 좋은, 동치미 한 그릇 떠 마시기 좋은’ 그들의 삶의 기록이라고 전한다. 특히 내고-달고-맷고-풀고, 즉 기경결해起經結解라는 자장가의 원리는 봄에 씨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고 있어 가장 자연적인 노래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대목은 전래자장가가 어떤 의미에서 가치를 갖는

지를 설득력 있게 소개하는 부분이다. 류씨는 여기에 이미지, 어감이 살아 있는 자장가의 어휘들이 아이의 언어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까지 덧붙여 전래자장가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있다.

“가평이나 문막 같은 곳을 찾아 채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지금 환경은 자장가를 부를 환경이 아니라고들 말씀하시더군요. 아스팔트 위에서 자장가를 부르는 게 민망하다는 말씀이지요.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회복하는 문제와 자장가를 부르는 일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갖게 됐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배경 위에서도 얼마든지 자장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류씨는 전래자장가의 뿌리가 되는 국악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자부한다. 서양음악은 수리적인 체계로 돼 있어 그 가능성이 적지만 국악은 자연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하기에 인간을 자연으로 회귀시키는 묘한 힘을 잠재하고 있다. 류씨의 차후 행보 역시 국악의 가능성들을 찾아 현 시대 사람들과 호흡할 음악을 완성하는 것. 결국 류씨가 눈두덩에 ‘잠이’ 내려앉는 걸 참아가며 밤새 완성한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 복시디는 그 행보의 일부이며 여기 담긴 전래자장가는 끊어진 전통을 잇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나무가 있는 언덕(수아樹阿)’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른 ‘쉽터의 노래’로 그 가치를 빛내고 있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